

영원을 향한 그리움의 형상화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펴낸 최중태씨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이후 그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구도자적인 자세로 살아왔다.

“최근 2~3년 전부터 소녀상 외에 파스텔화로 바다와 숲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숲은 인공이 배제된 생명성과 영원성을 담고 있지요.”

영원을 향해 열려 있는 인간과 자연을 형상화함으로써 그는 신과 영원의 세계를 만난다.

언젠가 제자들 앞에서 정색을 하고 조각이란 무엇인지 깨달은 바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조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온갖 정치한 이론으로 조각과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욱 더 깊은 진실을 제자들에게 밝힌 것이다.

정년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가나아트 스페이스’에서 <최중태 그림·영혼의 빛깔전>을 가졌다. 오는 9월경에는 교회조각 사진을 모아 가나화랑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녀상에 대한 영원한 탐구가 자신을 그냥 놓아두지 않을 것임을 안다. — 박천홍 기자



추사 김정희가 유배지에서 그린 <세한도>에는 고뇌하는 예술가의 영혼이 간결한 구도 속에 살아 있다. 굳이 요란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혼의 떨림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한도>의 세계이고 무르익은 예술의 경지일 것이다. 허세와 소란이 설치는 세상에서 새삼 추사의 세계를 떠올리는 것은 의고주의(擬古主義)의 소산만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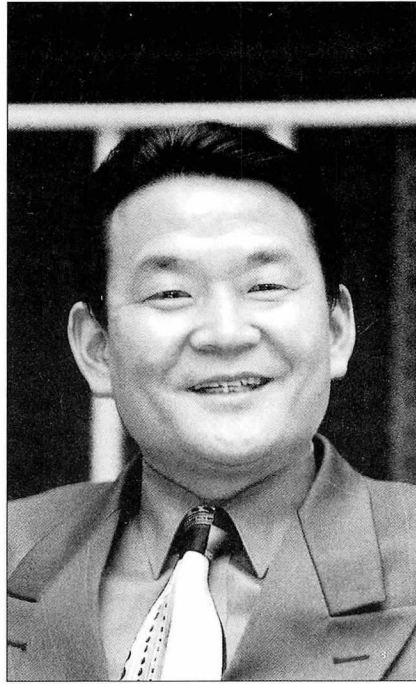
입체파·전위파·초현실주의파 등 현란한 예술유포들이 춤추는 한국미술계에서 수십년간 오로지 소녀상만을 그려온 육십씩의 조각가가 있다. 예술 수상집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열화당)을 펴낸 최중태씨(65)가 바로 그 주인공. 올해 오랜 동안 재직했던 서울대 미대 정년퇴임에 맞추어 나온 이 책에는 제목처럼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들이 추사를 닮은 단아한 문체와 선곡은 펜화 속에 담겨 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60대에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과 사랑에 대한 관심이지요.”

그는 조각·소묘·파스텔화·목판화·유리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작업해왔다. 그러나 그 대상은 한결같이 여인상. 그중에서도 소녀상이었다. 그렇게 소녀상에 매달려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직도 딱히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하고 영원한 이미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0대의 어느날 그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마치 필름으로 보는 영화처럼 순식간에 자신의 전체, 자신의 현재가 명료하게 보였던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이판사판’으로 베푸는 삶

《행복을 만드는 짜장면》 펴낸 박권용씨

하나 없이도 씹씩할 수 있는 힘이다. 더욱 흐뭇한 것은 어릴 때는 우리에게 해준 게 무어나고 대들던 두 아들이 아버지 편이 된 사실이다.

12살에 집을 나와 7개월의 철공소 시절을 거쳐 중국집 주인으로 자리잡기까지 그도 누구 못지 않은 고생을 했다. 고향 마을에서는 배가 고파 거짓말과 도둑질을 밥먹듯이 하고, “커서 깡패 오야봉이나 할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따뜻한 추억이 많습니다. 금성원 시절 만나 저에게 털목도리와 털장갑을 선물해준 임금자 누님은 언젠가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이들을 잘 이해한다. 특히 재소자들이나 가출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출소자들을 위해서 따로 방을 얻어 거두기도 하고, 가출청소년을 자신의 중국집에 모아들이기도 한다. 이러면서 사느라 중국집 주인이 된 지 벌써 십수년인데, 그는 아직 집이 없다. 그런 박권용씨가 이번에 큰 결심을 했다.

“책을 팔아 다만 몇 만원이라도 돈이 생기면 아내가 평생 소원이라고 노래하는 꽃달린 잠옷을 사 줄 생각입니다.”

— 이현주 기자

박권용씨(47)는 중국집 주인이다. 그가 운영하는 중국집은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작은 중국집이다. 짜장면값도 똑같다. 하지만 그는 짜장면을 팔아 번 돈을 다르게 쓴다. 《행복을 만드는 짜장면》(석필)은 그가 살아온 내력이며서 남을 도와온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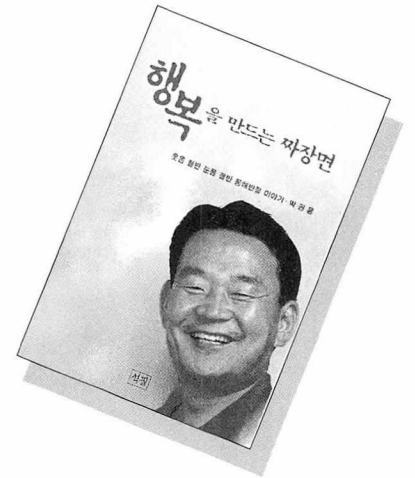
“17살에 배달을 나가다가 연탄 한장을 깨먹고 우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서럽게 우는 소녀 모습이 안타까워 주인에게 맡겨두었던 두달치 봉급을 찾아 소녀에게 연탄 50장을 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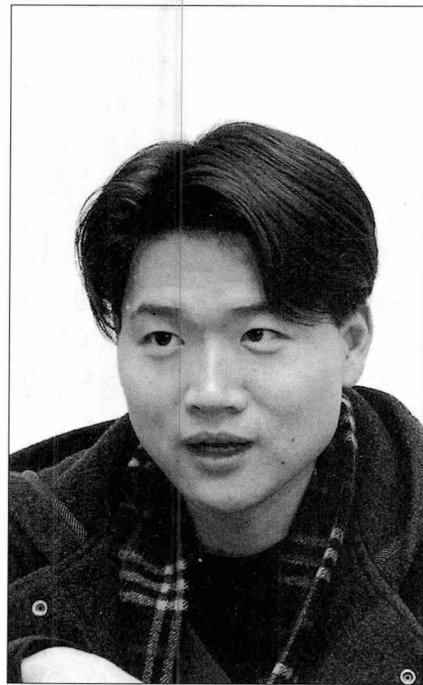
소녀와 소녀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건네는 고맙다는 인사가 듣기 좋아 그는 평생 남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선행은 보답을 받기 위한 것도,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우동 한 그릇에 감사하는 어느 집의 따뜻한 환대, 8년째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봉덕동 삼거리의 학생들 인사를 받는 재미에 하는 일일 뿐이다. 그래서 그가 남을 돕는 일에는 모범답안이나 패턴이 없다. 말 그대로 ‘이판사판’이다.

다리 밑 걸인들에게 우동을 뽑아다 주는가 하면, 가난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동네 식료품점에 진 외상을 대신 갚아준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라면 삶아먹이고 집에 재우고 자신과 아내는 처가에서 잔 일도 있다.

“다들 각박하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은 중업원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골엘 가보니 장례 치를 일이 막연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40명의 교우들이 달려왔다. 장의사도 자신의 돈 30만원을 들여 장례를 치러주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믿음은 그가 가진 것





세계인이 되고자 하는 한국인

《한국으로 유학 온 한국인》 펴낸 박상아씨

모친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처럼 고국으로 돌아온 재미교포 1.5세대 학생.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떠난 지 20년만에 돌아왔다.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 박상아(31)씨는 돌아온 연유와 그동안 생활하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한국으로 유학 온 한국인》(가지않은길)을 통해 담담히 보여 주고 있다.

여덟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성장하며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겪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며 대학에서 중국사를 전공하던 중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중국사를 배우는 동안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뒤늦게 우리 역사가 잘못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공까지 현대사에서 고대사로 전환했다.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분야가 바로 고대사이기 때문이다. 학위를 위한 논문도 발해사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싶어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다.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등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이질화된 문화적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끼리 대화가 없었어요. 동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처음엔 한국 사람 특유의 겸손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대화의 문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묵묵히 지내던 사람들도 술만 마시면 열변을 토해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학생들 사이의 침묵은 패배의식 때문이라는 것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대화 문화의 부재는 사회 전체가 강박관념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을 열어준 사람에게는 밀도 끝도 없이 잘해 주는 것이 또한 한국 사람들이었다. 한국에서 3년을 보낸 지금 그 역시 정리에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맛볼 수 없는 감정이었다.

“인정을 앞세우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돌출시킬 수 있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더라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만큼은 꼭 간직하렵니다.”

한국·일본·중국, 그밖에 많은 나라를 방문했다는 그는 나라마다 지닌 문화적 장점을 십분 발휘하며 살겠다고 했다. 세계인이 되고자 유엔에서 일하며 한국을 바로 알리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 했다. 앞으로 역사서와 역사소설을 번역하며 세계 오지의 어린이를 위한 사업에도 동참하고 싶다는 그에게서 젊은 한국인의 당찬 모습을 볼 수 있다. — 오완진 기자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우리 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런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박 현 지음 / 7,000원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에만 막 찬 조선의 금서목록
- 작은 거리를 고백하는 까닭 등...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슬슬 읽으면 쑥쑥 들어오게
풀어낸 현대철학 이야기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필수 핵심용어 30개지 완벽 정리

- 마르쿠스/잉여가치
- 니체/권력지지
- 프로이트/무의식
- 소쉬르/기표와 기의
- 후설/판단중지
- 레닌/약한 고리
- 융/집단 무의식
- 아인슈타인/상대성
- 케인스/유효수요
- 바울러/인식론적 단절
- 루카치/계급의식
- 하이데거/현존재
- 그람시/헤게모니
- 리랑/욕망
- 아도르노/계몽
- 사르트르/자유
- 브로델/장기 지속
- 비트겐슈타인/언어 게임
- 하이젠베르크/불확정성
- 레비스트로스/심층구조
- 바르트/신화
- 알튀세르/이데올로기
- 쿤/패러다임
- 리오타르/포스트모던
- 들리즈와 가타리/욕망
- 푸코/지식-권력
- 보드리야르/시뮬라시옹
- 하버마스/의사소통
- 데리다/해체
- 부르디외/이비투스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면 분들을 위해,

남 경태 지음 / 6,800원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